

무유공포

| 김홍호 |

내면의 분열이 없는 존재에게 두려움이 없으며, 그것은 근본경험을 통해 일어남을 말합니다. (편집자 주).



요한 1서 4:16 ~2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세 사람을 뽑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서양 고대 최대의 철학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거스틴이고, 그다음에는 구교를 이기고 신교를 시작한 마르틴 루터이고, 그다음은 사회의 불안을 극복한 요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인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18절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공포가 없다”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무유공포(無有恐怖)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 무유공포를 아주 짜임새 있게 쓴 것이 불교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입니다. 불교도들은 그것을 ‘반야심경’이라 하여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외웁니다. 그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핵심이 무유공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자였으므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며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진리 탐구입니다. 루터라는 분은 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세력이 컸던 가톨릭과 싸워 이겨야 했기 때문에 루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루터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의지를 한마디로 ‘믿음’이라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말하려는 요한 웨슬리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어거스틴, 의지적인 루터, 정적인 웨슬리, 이 세 인물이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가르치는 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암만 해도 머리라고 하는 지적인 것과, 배라고 하는 의지적인 것과, 가슴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지(知)·정(情)·의(意)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의적인 내용, 성령

하면 지적인 내용, 그리스도하면 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성숙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맨 처음 찾아가는 것은 지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생으로서 진리 탐구를 목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 행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엔 정적인 완성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지행일치(知行一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지로 시작해서 행을 거쳐 정으로 가게 됩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셸러는 “진리보다는 진실을”이라고 말했는데, “진실보다도 진정을” 이것은 공자의 말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이상은 인(仁)이라고 했는데, 어질 인(仁)은 진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랑이 궁극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는 말까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물론 외적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되지만, 내적으로 표현될 때는 인격의 성숙, 더 쉽게 말하면 인격의 통일, 정신의 통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이 분열되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무엇인지는 몰라도 불안감을 쉽게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분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정제를 먹게 되고 환각제가

지 먹지 않습니까. 가수 같은 사람들이 남의 앞에 나서려면 자꾸 떨리고 무섭고 불안해서 안정제나 환각제를 먹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불안, 공포,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심지어 자기 부모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이 모자라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정신이 통일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신이 통일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이 통일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정신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정적인 통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으로 따져 보자면 ‘지적인 통일’의 어거스틴은 “내적인 빛”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통일’의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정적인 통일’의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 온전이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지행일치(知行一致)에서 일(一)에 해당합니다.

일(一)은 정서의 통일, 이것은 영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리 만큼 그 사람들은 정서 통일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철학을 합리론, 영국이나 미국의 철학을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정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경험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험철학에서는 로크(John Locke), 흄(David Hume)이 경험철학의 대가들인데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인 1700년대에 나온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시대는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라서, 말하자면

자본가들이 많이 생기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한없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의 극한적 대립을 보이는 때가 175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식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20세기야말로 분열의 시대,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입니다.

공포란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생깁니다. 통일이 되면 공포가 생길 이치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한의 공군력이 무척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공군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고 미사일을 쏘면 서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지 모르지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는 언제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라는 것, 부자들이 자꾸 가시칠망까지 치고 또 전기까지 통하게 하면서 개를 갖다 두는 이유는 다 공포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언제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자연히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공연히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요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회적인 대립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적인 대립 때문에 우리 정신력에도 분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시대가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분열의 시대 속에서 교회도 또 분열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국 교회는 높은 교회와 낮은 교회로 딱 갈려졌어요. 높은 교회는 국교라고 하는데 High Church, 영국 국교입니다. 거기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나가서 축복해주는 소위 형식주의입니다. 성경을 말해도 지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냉랭한 교회, 우리 대학

교회도 자칫하면 냉랭한 교회라는 말을 듣기가 쉬운데, 감리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은 교회, 귀족들이나 상층 계급들이 모이는 사교장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밑의 교회, 대개 신비주의, 현실적으로 복을 바라는 사람들, 요새 말하면 순복음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는, 밤낮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파들로 짝 갈라졌습니다. 이 교회 사람은 저 교회에 갈 수 없고, 저 교회 사람은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대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통일시키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물론 웨슬리도 본래 속하기는 높은 데 속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 속해 보면 아는 것도 많고 사교도 되긴 하지만 믿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교회 쪽에 가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떠드는 것을 보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광신, 하나의 정열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먼 사람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눈은 밝은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하면 앓은뱅이와 장님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소위 영국의 높은 교회입니다. 전도도 않고 그저 모여서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는 게 일쑤입니다. 그러나 광신은 힘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빛과 힘, 이런 것이 통일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알기도 하고 힘도 있으려면 반드시 감정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 정적인 통일이 없으면 진리는 진리대로 달아나고, 진실은 진실대로 야단치고, 이것이 진정이라는 감정적인 통일이 없으면 완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준 사람이 요

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처음에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학도 열 가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옥스퍼드대학에서 26세에 조교수가 되어 철학과 논리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 당시 최고의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이 모라비안족인데, 이들은 독일 사람으로 보헤미안 사람들입니다. 보헤미아에 진젠도르프 (Nicholas L. von Zinzendorf) 라는 백작이 살았는데 자기 영내에서 일어난 신비주의를 이 사람이 아주 두둔해서 길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이 모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전도에 가장 열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 미국, 온 세계에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멘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 합니다.

이 신비주의의 특징은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신비주의 속에는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선(破船)되려고 하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을 치는데, 단 한 곳에서 조용하게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예배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출신을 물어보니까 독일에 있는 모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이지요. 보헤미아의 헤른후트 (Herrnhut) 에서 살았기 때문에 괴테가 헤른후트 사람들의 생활을

웨슬리는 남한테는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믿지 못하는, 허위 속에서 살고 있었 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라비아 사람들에게 접근해 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웨슬리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공포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서 『아름다운 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웨슬리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공포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웨슬리도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Holy Club)을 만들어서 성경 연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형무소에도 찾아가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도무지 불안과 공포와 불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웨슬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전도를 하려 하면서, 남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자기 속이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남한테는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믿지 못하는, 허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웨슬리는 결국은 이 모라비아 사람들에게 접근해 갑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고』라든가, 『테온로기아 게르마니카』라는 신비주의 책을 읽게 됩니다. 또는 윌리엄 로이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신비주의 책을 많이 읽고, 신비주의의 지도자, 스펡겐베르크(Augustus G. Spangenberg)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그 사람들의 삶을 자기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스펡겐베르크를 만났을 때 스펡겐베르크가 세 가지 질문을 하

는데, 그 세 가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은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의인(義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인이 첫째입니다.

둘째 문제가 “네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요한 웨슬리의 대답이 “예,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입니다.” “이놈아,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네 구주가 되어야지, 인류의 구주가 되면 뭐 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구주라는, 성령의 확증을 받았느냐,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확증’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이 웨슬리 신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 넌 네 자신을 아느냐?” 그때 요한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겠느냐. 내가 사람이지.” “이놈아,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네가 신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대학교회에서 설교집을 낼 때 『사랑 삶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人)이라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생(生)이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질 인(仁) 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성, 즉 자기 속의 신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맨 처음에 “나는 누군가. 나는 정신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라비아 사람들에게 자주 접근해가다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결국 분열되었던 두 마음이 통일되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됩니다.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학자와 신비주의가 부딪쳐서 정적인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는 자기 가슴 속에 “뜨거움을 느꼈다”는 말을 썼습니다. 뜨거움을 느꼈다는 것을 보통 우리는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분열되었던 자아가 통일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뜨거움을 느꼈다는 것은 진정(眞情)이 되는 것이며, 정적인 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시작이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 예배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강해하는 루터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다는 경험, 이런 경험을 영국이나 미국의 철학에서는 근본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 즉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었다가 거기서 만나는, 통일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분열되는 것도 다 하나님과 나와서 분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면 세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제임스(William James)는 과학과 종교를 통일해 보려고 자기 철학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종교는 과학의 목적이요, 과학은 종교의 수단이다.” 또한 “내가 있어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우선 내가 있어서 설악산도 구경 가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는데,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불신에 찬 나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어서의 나, 이 경험이란 근본 경험입니다. 근본 경험을 가진 나는 일체의 불안과 불신, 공포를 넘어선 나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은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기쁨을 나는 “기가 뿔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가 뿔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電氣)라고 하면 제네레이터와 전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동력에 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가슴 속에 뜨거움을 느끼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참뜻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김활란 박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김활란 박사 묘비에 그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 요한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을 가진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다음에 보헤미아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 보고는 신비주의와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들어가면 자기도 장님이 될 것 같아서 신비주의와 인연을 끊고, 다시 옛날


지식을 살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신비주의를 합쳐 새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감리교입니다. 지적인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것도 아닌, 하나의 정적인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진리의 기독교도 아니고, 진실의 기독교도 아니고, 진정의 기독교입니다. 사랑의 기독교입니다. 사랑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완전의 기독교입니다. 완전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불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들은 영국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웨슬리의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인즉 요한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 국교회를 떠나 탄광의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고 탄광촌에 맨 처음 제1 감리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자녀를 교육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감리 교회가 있는 곳은 학교와 병원이 언제나 쫓아다닙니다. 이화대학에도 감리교회가 와서 곧 시작한 것이 학교와 병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감리교의 전부라면 전부입니다.

웨슬리는 처음 목사가 되어 첫 월급으로 30만원을 탔습니다. 생활비를 다 계산해보니 28만원만 있으면 되겠기에 28만원만 생활비로 내놓고 2만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웨슬리가 죽게 되었을 때쯤에는 월급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웨슬리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년퇴직할 때쯤에는 120만원쯤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120만원을 받았을 때도 언제나 28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또 웨슬리는 자기의 월급을 내놓는 것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다 같은 마음으로 협조하게 해서, 웨슬리가 일생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돈이 30억쯤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업장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한 주에 한 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법령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는 지적, 의지, 적도 아닌 정적(情的)인 교회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것이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하루를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